

재외국민에 선거권 준다

헌재 '참정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현행법 개정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중대 재판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규정할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 15명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할 목적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연합뉴스>

▲헌법불합치=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것은 위헌"이라며 낸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사안별로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재판부는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할 목적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연합뉴스>



'여성의 인권과 문화'를 주제로 한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이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여성 평화포럼 공동위원장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필식 동신대 이사장이 해의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성 인권증진이 세계평화 초석"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 폐막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이 28일 세계 여성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주선언'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인터뷰 20면>

평화포럼에 참가한 200여 여성 운동가들은 이날 광주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산실인 광주에서 여성의 인권증진이 세계평화의 초석을 확립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포럼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기념한 2005년 '광주아시아여성평화포럼'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해 개최된 2006년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세계여성평화포럼 광주선언문은 민주·인권·평화의 열망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과 폭력이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선언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여성주의 인권향상을 위한 각국의 법과 제도의 개선 촉구 ▲여성인권 관련 국제법규와 협약 이행 노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이행 촉구 ▲적극적인 여성의 평화증진 활동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정치세력화 ▲세계 여성의 지속적인 연대 등을 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아차 내달 3일부터 또 파업

노조 "임금협상 결렬"…6일까지 주·야간 4시간씩

기아차 노조가 27~29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 파업'을 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물론, 330여개에 달하는 광주·전남지역 기아차 협력업체들의 생산라인이 일제히 멈춰서는 등 파업에 따른 손실이 수백억대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다음달 3일 파업선전포기를 갖고 6일까지 주·야간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7~29일 진행된 '정치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대수 1천400여

대, 파업손실 222억원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임금협상을 이유로 한 파업까지 현실화될 경우 일단 다음달 6일까지 4천여대 생산 차질에 파업손실액이 62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파업 일정은 기아차노조 중앙정책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정해지나, 노사간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다음달 6일 이후에도 계속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 노사는 ▲기분급 12만8천805원(기분급 대비 8.91%) 인상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의 노조 임금협상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

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9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파업한 뒤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광주시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6월 총력투쟁 승리 전국 동시다발 노동자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기아차 노조는 17년 연속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을 세우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23일 동안의 임단협 파업을 통해 생산차질대수 1만5천여대, 2천300억원의 파업손실을 기록했다. 기아차 전체는 4만8천여대, 7천3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광주공장 노조의 파업으로 협력업체 피해도 500억원에 달했다"면서 "지역민들의 걱정을 무시하는 광주공장 노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유한양행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경찰, 민노총 지도부 15명 체포영장

현대·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경찰은 28일 민주노총의 한미FTA 반대 파업과 관련,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과 금속노조 산하 각 사업장 노조위원장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도 이날 노조 지도부

3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날 2천94대의 생산차질과 297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혐의로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김기현 노조간부 6명과 각 지회장 및 사업부 대표 17명 등 총 23명을 고소했다. 또 기아차는 김상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인·가족과 함께 주말을 맘껏 웃어봅시다

'넌센스 크래커' 광주 공연

- 일시 : 2007년 6월30일(토) 오후 4시, 7시30분
2007년 7월 1일(일) 오후 3시, 6시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예매 : www.ticketmaru.co.kr
- 문의 : (062)220-0541, 1588-0766

광주일보 (주)공영아루 전남대학교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배콤씨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배콤씨

유한양행 2007 한국농림수산식품부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제1위 (제약부문) 1위

배콤씨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수분생리활성제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04-1188(수업시간) / 부산(051)452-4973 / 대구(052)752-06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27-9000 / 서울(02)382-1000